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024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Ⅱ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CHORAL Ⅱ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2024.7.12. (FRI) 20:00 롯데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이 유의해주세요.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2024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II

2022년부터 시작된 KBS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국내·외 최정상급 지휘자 또는 협연자와 보다 심도있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그 연주자들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리즈이다. 기존 공연 형식과의 차별성을 통해 2024년, 정명훈의 지휘로 장엄한 고결함과 자애로운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탈리아 종교 음악의 정수를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선사한다.

PROGRAM

슈베르트
F. Schubert

교향곡 제8번 b단조, D.759 '미완성' **25'**
Symphony No.8 in b minor, D.759 'Unfinished'

I.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12')
II. Andante con mot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13')

인터미션 (Intermission) **15'**

로시니
G. Rossini

스타바트 마테르 **61'**
Stabat Mater

I. Introduzione: Stabat Mater dolorosa - 합창, 4중창 (7')
II. Aria: Cujus animam – 테너 (6')
III. Duetto: Quis est homo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7')
IV. Aria: Pro peccatis – 베이스 (6')
V. Coro e Recitativo: Eja, Mater – 베이스 레치타티보, 합창 (5')
VI. Quartetto: Sancta Mater – 4중창 (10')
VII. Cavatina: Fac ut portem – 메조소프라노 (5')
VIII. Aria e Coro: Inflammatus – 소프라노, 합창 (5')
IX. Quartetto: Quando corpus morietur – 합창 (5')
X. Finale: In sempiterna saecula. Amen – 합창 (5')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ean-Francois Leclercq

MYUNG-WHUN CHUNG
CONDUCTOR

지휘 **정명훈**

"그는 영적인 지휘자" - 프랑스 <르 몽드>지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이 시대에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명예예술감독 및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역대 최초 명예지휘자로 임명된 바 있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오페라 바스티유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만 4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으며,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국제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음악가 상',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음악상', 2017년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훈하였다.

SUMI HWANG
SOPRANO

소프라노

황수미

2014년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소프라노 황수미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와 극장에서 활동하였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오페라/리트&오라토리오)을 졸업하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 찬가를 불러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며 주목받은 황수미는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앙상블 마테우스 오케스트라, 비엔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펜하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솔리스트로 협연하였다.

제14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 콘서트에서 베토벤 합창의 솔리스트로 공연하였고 유럽과 더불어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연주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JUNGMI KIM
MEZZO-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메조소프라노 김정미는 이탈리아 키지아나 아카데미를 거쳐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중앙콩쿠르 1위 없는 2위 수상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알카모 콩쿠르 1위 및 특별상, 라우리-볼피 콩쿠르 특별상,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2위 등 다수의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유럽에 이름을 알렸다. 제네바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제19회 '페트 드 라 뮈지크' 출연을 비롯하여,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신년음악회 베토벤 <나인심포니>, 독일 라이프치히 <바흐페스티벌> 초청, 롯데콘서트홀 개관 기념 공연 말러 <천인교향곡>, 마카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레퀴엠>과 헨델 <메시아>, 프랑스 메츠오케스트라 모차르트 <C단조 미사>등에 협연하였고, 서울시향과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와 함께한 바흐 <요한수난곡>,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정명훈 지휘자가 이끄는 아시아 필하모닉, 도쿄필하모닉, KBS교향악단과 협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EUNG JICK KIM
TENOR

테너

김승직

©Teresa Rothwang

테너 김승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016년 세계적인 권위의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를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제22회 KBS한전음악콩쿠르 금상,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대표적인 차세대 성악 유망주로 손꼽히는 테너 김승직은 2015년에 서울시오페라단 창단 30주년 기념 오페라 <파우스트>의 '파우스트' 역으로만 25세에 발탁되어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였고,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과 다수 협연하였다.

20/21시즌부터 독일 쾰른 오페라 극장에서 3년간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2023년 9월부터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SAMUEL YOUN
BASS BARITONE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공부를 시작(이인영 교수 사사)하여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과 독일 쾰른 음악원에서 학업을 마쳤고, 여러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실력을 입증하였다.

2012년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개막작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주역을 계기로 전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틸레만, 마르쿠스 슈텐츠, 야닉 네게 세겡 등 거장 지휘자들과 협연했고, 런던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치 오퍼, 밀라노 스칼라 극장, 파리 바스티유 극장, 쾰른 오페라 극장, 미국 리릭 오페라 시카고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활동했다. 2022년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궁정가수(Kammersänger) 칭호를 수여받은 사무엘 윤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근 유니버설뮤직에서 첫 솔로앨범 <From Darkness To Light>가 발매되었다.

안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충한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에 창단되어 13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그리고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뛰어난 연주와 기획, 그리고 정통합창 사운드로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명성을 얻은 안양시립합창단은 합창 애호가들로부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40여회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클래식, 팝송, 가곡, 뮤지컬 등을 통해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합창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CD를 제작하였으며, 매년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유수의 관현악단과 협연을 하고 있다. 특별히 2013년 겨울에는 서울시향(지휘:정명훈)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녹음하여 출반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합창연맹(IFCM)으로부터 2008세계합창심포지움(덴마크 코펜하겐)에 초대되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동양의 특이하고 환상적인 사운드에 매료되었다'는 호평을 들었으며, 제10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서 브람스의 '독일레퀴엠'을 연주하는 등 수준 높은 음악적 예술성을 전 세계 합창계에 보여주며 세계 속에 한국 합창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윤의중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되어 1995년 윤학원 전 예술감독과 함께 재창단 후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성장하였다. 1997년 벨기에 IFCM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을 시작으로 수십여 회의 국제합창제와 미국 카네기홀 연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합창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또한, 2009년 세계 합창인들의 꿈의 무대로 알려진 미국합창지휘자총연합회 ACDA(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에 세계 4대 합창단으로 초청되어 5,000여명의 세계 합창지휘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영예도 누렸다. 2010년에는 프랑스 노르망디 세인트로에서 열리는 세계합창박람회(World Showcase & Marketplace for Choral Singing) 초청연주를 통해 세계최정상의 합창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한국합창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현재 제8대 예술감독인 윤의중 지휘자와 약 70회의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크고 작은 연주를 통하여 인천의 시민들과 전국의 합창인들에게 다양하고 감동적인 합창음악을 선사하고 있으며, 300만 인천시민이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인천합창대축제'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합창 저변 확대와 발전에 힘쓰고 있다.

PROGRAM NOTE

슈베르트 / 교향곡 제8번 b단조, D.759 '미완성'

F. Schubert / Symphony No.8 in b minor, D.759
'Unfinished'

작곡연도
1822년
초연
186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25분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슈베르트는 <교향곡 제8번>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전체 4악장으로 완성되었어야 할 교향악은 정확히 그 절반인 단 두 악장만이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형식적인 단정함과 충만한 서정으로 가득 찬 내용 간의 조화가 너무도 완벽해서 미완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도 진하게 남아있다.

1악장은 독일적 낭만주의의 극치라 부를만하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서늘한 저현이 조심스레 서주를 연주하며 교향악의 문을 연다. 마치 오스트리아의 깊디 깊은 침엽수림을 걷는 듯한 신비로운 표정이 압권이다. 곧이어 섬세한 운동감을 지닌 바이올린이 제1주제를 이끌며 차분하면서도 비극적인 정경을 스케치해 나간다.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음악이면서도, 소나타 형식의 단정한 논리적 구조에서 결코 벗어남이 없기에 지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악장이라는 평가다.

2악장은 느리고 투명한 음악으로 채워진다. 슈베르트는 특히 자연적인 서정의 테마를 놀라운 솜씨로 변주해내곤 했다. 여기서도 마치 시냇물의 흐름이나 봄날의 새소리 같은 소박하고 작은 동기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한없이 충만하고 조화로운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후 슈베르트는 3악장 스케르초의 아홉 마디 총주 악보를 남긴 채 끝내 멈춰 섰다. 앞선 두 악장에서 들려준 감미로운 음향과 신비로운 낭만성이 너무도 인상적이기에 남은 절반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도 여전하다. 결국 이 교향악의 키워드는 '미완'이자 '상실'이다. 그 쓸쓸한 결말이 주는 어떤 숭고함이 정갈한 필치로 구성된 두 악장의 교향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로시니 / 스타바트 마테르

G. Rossini / Stabat Mater

작곡연도
1832년~1842년
초연
1842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
편성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베이스-바리톤) 독창
혼성합창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 5부
연주시간
약 61분

<스타바트 마테르>는 스타바트 마테르 돌로로사(Stabat Mater dolorosa), 즉 '슬픔에 빠진 성모가 서 계시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중세의 시가에서 비롯된 종교음악이다.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성모 마리아의 가슴 아픈 심정을 절절히 묘사한 것인데, 성모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한때 이 내용을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에 호소력이 뛰어났기에 곧 전 유럽에 걸쳐 널리 연주되는 최고의 종교음악이 된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 또한 결국은 스타바트 마테르를 테마로 한 작품이다. 피에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애절함, 가슴 깊은 먹먹함, 서늘한 슬픔의 깊은 서정을 음악으로 옮기면 바로 스타바트 마테르가 된다.

비발디, 페르골레시 등 위대한 이탈리아 선배 음악가들의 <스타바트 마테르> 전통은 로시니로 이어졌다. 로시니는 도니제티, 벨리니와 함께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3대 작곡가로 손꼽힌다. <세비야의 이발사>, <라 체네렌톨라> 등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코믹 오페라와 함께 <모세>, <윌리엄 텔> 등 장대한 비극도 여러 편 남겼다. 그의 음악언어는 화사한 이탈리아의 태양처럼 밝고, 벨칸토 특유의 기교적인 화려한 세공미가 특징이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은 <스타바트 마테르>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즉, 로시니 음악 속의 성모는 온화한 훈풍처럼 아스라이 우리를 감싸는 자애로움으로 다가온다. 특히 테너 독창곡인 제2곡 '탄식하는 어머니의 마음 Cujus animam'에서 이 곡의 지향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선율 사이로 테너의 낭랑한 음성이 끝 모르고 솟아오른다. 가슴을 아리게 하는 차디 찬 슬픔보다는 온화한 모성애의 상징인 성모가 빛처럼 찬란한 음률로 우리를 부드럽게 위무하는 느낌이다.

38세의 나이에, 그것도 커리어의 절정에서 붓을 멈추고 은퇴를 선택한 로시니는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미식비평가 겸 사교계 명사 정도의 위치를 지키며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1831년에 스페인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수도사의 부탁으로 이 곡을 썼는데, 원래는 다른 작곡가와 양분해서 곡을 만들다 후일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로시니 본인이 전곡을 완성해낸다.

1842년 자신만의 단독 작곡 버전 초연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뤄졌고, 곧 그의 음악적 고향이라 할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도 공연되어 기념비적인 절찬을 받는다. 특히 제9곡 '예수여 육신은 죽어도 Quando corpus morietur'와 마지막 제10곡 '아멘 Amen'으로 이어지는 피날레 파트의 장대함은 초연 당시부터 청중들의 비상한 감동을 자아냈다. 중세 수도사들의 찬송을 듣는 듯한 아카펠라의 진한 무채색 감동 위에 2중 푸가로 이뤄진 '아멘'의 종결부가 찬란한 오케스트라와 합쳐지며 마무리되는 장면은 가히 압도적이다.

로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우유 빛 자애로운 서정이 작품 전체를 감싸고도는 음악이다. 그래서 조금만 절제를 잃고 벨칸토 작곡가 특유의 화려함에 집착한다면 이 음악이 주는 본질적인 감동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지휘자 정명훈은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스타바트 마테르> 해석자로 손꼽힌다. 그가 남긴 수많은 공연과 레코딩은 모두 이 작품의 해석에 관한 하나의 표준이자 이정표가 되어 왔다. 이탈리아적인 낭랑한 서정미와 화려한 빛의 성찬과도 같은 싱싱한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달콤하고 애절한 슬픔의 씨앗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건 역시나 위대한 예술가의 놀라운 통찰력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KBS교향악단과 함께 듣게 된다. 분명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예술적 경험이 될 것이다.

글 I 황지원 (음악 평론가)

G. Rossini / Stabat Mater
LYRICS

번역 I 윤종국(마르꼬) 신부

I. Introduzione

Stabat mater dolorósa
juxta Crucem lacrimósa,
dum pendébat Fílius.

II. Aria

Cujus ánimam geméntem,
contristátam et doléntem
pertransívit gládius.

O quam tristis et afflícta
fuit illa benedícta,
mater Unigéniti!

Quae mœrébat et dolébat,
Et tremebat, cum vidébat
nati pœnas ínclyti.

III. Duetto

Quis est homo qui non fleret,
matrem Christi si vidéret
in tanto supplício?

Quis non posset contristári
piam Matrem contemplári
doléntem cum Fílio?

IV. Aria

Pro peccátis suæ gentis
vidit Jésum in torméntis,
et flagéllis súbditum.

Vidit suum dulcem Natum
morientem desolatum
dum emísit spíritum.

V. Coro e Recitativo

Eja, Mater, fons amóris
me sentíre vim dolóris
fac, ut tecum lúgeam.

Fac, ut árdeat cor meum
in amándo Christum Deum
ut sibi compláceam.

I. Introduzione – 합창, 4중창

고통의 성모
눈물 흘리시며 서 계시도다
아드님 매달리신 십자가 곁에

II. Aria – 테너

성모의 애끓는 마음
비참한 마음, 고통에 찬 마음을
쌍날칼이 꿰뚫는구나

아,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러우셨을까!
외아드님의 어머니
그 복되신 분이

그 얼마나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몸서리치셨을까
고개 떨구신 아드님의 고통을 보시매

III. Duetto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어떤 이가 울지 않으랴?
애타게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 누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아드님과 함께 고통 받으시는
애달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IV. Aria – 베이스

당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고문과 채찍질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보셨도다

성모께서 보셨도다
외로이 숨 거두시며 죽어가는
가엾은 당신 아드님을

V. Coro e Recitativo – 베이스 레치타티보, 합창

오, 성모, 사랑의 샘이시여
제가 그 모진 고통을 함께 느끼며
당신과 함께 울게 하소서

제가 그리스도 하느님을 사랑하여
그분 마음에 들도록
제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VI. Quartetto

Sancta Mater, istud agas,
crucifíxi fige plagas
cordi meo válide.

Tui Nati vulneráti,
tam dignáti pro me pati,
pœnas mecum dívide.

Fac me vere tecum flere,
crucifíxo condolére,
donec ego víxero.

Juxta crucem Tecum stare,
Te libenter sociare,
in planctu desídero.

Virgo vírginum præclára,
mihi iam non sis amára,
fac me tecum plángere.

VII. Cavatina

Fac, ut portem Christi mortem,
passiónis fac consórtem,
et plagas recólere.

Fac me plagis vulnerári,
cruce hac inebriari,
Ob amorem Filii.

VIII. Aria e Coro

Inflammatus et accensus
Per Te, Virgo, sim defensus,
in die judicii.

Fac me Cruce custodiri,
morte Christi praemuniri
confoveri gratia.

IX. Quartetto

Quando corpus morietur,
fac ut animæ donetur,
paradisi gloria.

X. Finale

In sempiterna saecula. Amen.

VI. Quartetto - 4중창

거룩하신 어머니, 청하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상처를
제 심장에 깊이 새겨주소서

저를 위해 상처받으시고
수난하신 당신 아드님 받으신 형벌을
저와 함께 나누소서

제가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진심으로 울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함께 고통받게 하소서

저는 통곡하며 간절히 바라나이다
저는 십자가 곁에 성모와 함께 서서
당신과 기꺼이 함께 하게 하소서

동정녀 가운데 가장 빼어나신 동정녀시여
당신은 제게 모질지 않으시니
제가 당신과 함께 울게 하소서

VII. Cavatina - 메조 소프라노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의 몫을 지게 하시고
또한 그 상처도 되새기게 하소서

제가 그 상처자국으로 상처 입게 하시고
성자께 대한 사랑으로
이 십자가에 취하게 하소서

VIII. Aria e Coro – 소프라노, 합창

동정녀시여, 심판의 날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라지는 제가
당신을 통해 보호받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감싸주시며
은총으로 돌보아주소서

IX. Quartetto – 합창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X. Finale - 합창

영원무궁히. 아멘.

젊어지는 클래식, 문턱 낮추는 공연장

최근 국내 클래식 공연장을 찾는 관객 연령대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클래식 음악은 오랜 기간 동안 엄숙한 분위기와 높은 티켓 가격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대중들에겐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분야였다. 공연장에서는 정장을 갖춰 입어야 하고,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않아야 하며, 음료 반입도 금지된다. 또한 R석 기준 1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티켓 가격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젊은 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클래식 업계는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젊은 관객들을 유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클래식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 영상이나, 공연 실황을 담은 영상 등을 제공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실제 공연장의 관객 연령대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클래식 엄숙주의 타파, KBS교향악단의 대중화 노력

대한민국 대표 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예술 단체로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키즈 콘서트' 등 클래식 음악에 대한 편견을 깨려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오랫동안 KBS교향악단의 주요 관객 연령대는 평균 5~60대에 머물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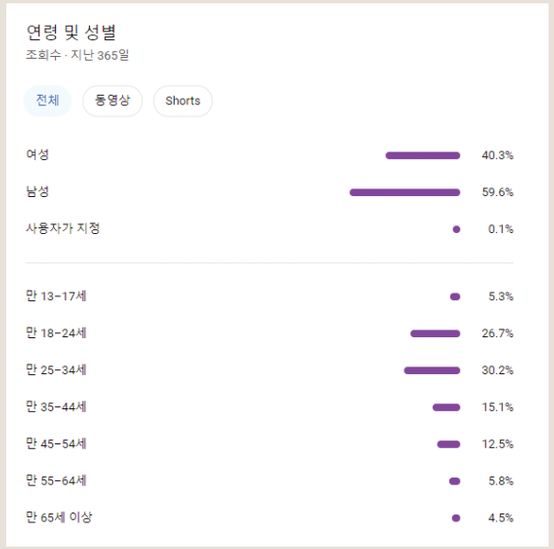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KBS교향악단 관객층에도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2019년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티켓 예매자 중 만 7세~24세의 비율은 1.53%에 불과했는데 2023년은 4.08%, 2024년은 5개 공연 기준 4.94%에 달했다. 24세 이하의 티켓 예매율이니 3~40대 예매율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젊은 실속파 관객을 위한 3만원 B석과 1만원 C석은 금방 매진된다.

유튜브를 통한 새로운 시도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서영재PD의 유튜브 리뉴얼이 있다. KBS교향악단은 대중을 사로잡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클래식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관객들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의 모습을 소개하거나, 연주곡의 하이라이트를 짧고 굵게 소개하는 '클래식 최고의 플레이', KBS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과 합성하는 '궁예 레퀴엠, 강호동 협주곡' 등 최근 대세인 숏폼 전용 콘텐츠를 당시로선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시도하여 유튜브 감성을 공략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게임 산업 분야와의 협업도 눈에 띈다. 게임 '로스트아크'와 협업한 2022년 6월의 <로스트아크 콘서트 –Dear. Friends>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공연 이후에도 지휘자와 연주자가 직접 공연 비하인드를 이야기하고 클래식 음악을 추천해주는 영상은 많은 게임 유저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던 '궁예-레퀴엠' 영상은 파격적인 콘텐츠로 클래식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동영상은 단 30초에 불과한 공연 홍보영상이었지만 조회수 94만 회를 기록하고 해당 공연의 티켓 매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최근에 업로드한 '강호동 협주곡'은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강호동 장면과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불고기버거세트' 작곡가의 작품을 결합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4만 명을 돌파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래식 음악 유튜브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구독자 연령을 살펴보면 45세 이하가 무려 77%에 이른다. 최근 젊은 층의 티켓 예매율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유튜브의 역할이 막중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연령 분포

3대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공연장 만드는 게 목표

젊은 관객층이 늘어나면서 클래식 공연장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중장년층 관객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캐주얼한 복장의 젊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BS교향악단은 젊은 관객층의 증가와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도 기획하고 있다. 젊은 관객층의 유입에 그치지 않고, 훗날엔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3대가 함께 손잡고 찾아오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KBS교향악단의 목표이다.

글 I 이미라 (KBS교향악단 공연사업팀 과장)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서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 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한창록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악장 * 부악장 ** 수석 + 부수석 + +**
제1바이올린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클라리넷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인턴십 2기**
제1바이올린	김수연
제2바이올린	박예진 이예령
비올라	이태형
첼로	김유림 심수연
바순	최찬열
호른	민예원
트럼펫	이영훈
객원수석	
악장	David Coucheron*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나재령+
호른	Hui-Yi Lee+
트롬본	Vicente Climent+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인턴** 위가을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사원** 차하영 장태형 **PD** 서영재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3년 당신을 지지해온
씰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구매 문의 : 1670 - 2152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